

**PRESSBOOK**

Tatiana TROUVE

*Artnow*

*June 2017*



## Artnow Summer 2017 Junghwa Ryu

에디터, 김이신(christmas@noblesse.com) 글, 류정화(전시 기획자)  
사진 제공, 페로탱 갤러리

Review

### 보이지 않는 세계

지난 5월 17일, 홍콩 페로탱 갤러리에서 타티아나 트루베 개인전이 막을 내렸다. 전시 기간 내내 갤러리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숨바꼭질을 펼쳤다.



Photo by Ringo Cheung  
© Tatiana Trouvé / ADAGP, Paris & SACK, Seoul, 2017

1

"나는 예술은 질문을 하지도, 대답을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술은 우리 안에 고정된 지식의 자리를 이동시키면서 다르게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Elena Cué, Interview with Tatiana Trouvé, The Huffington Post, Nov. 18, 2016)

아트 바젤 홍콩이 한창인 3월 23일, 홍콩 페로탱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타티아나 트루베의 전시장을 두 번 찾았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짧은 체류 기간 탓에 속 둘러보고 나왔다. 눈을 사로잡는 포인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위에 언급한, 예전에 <허핑턴포스트>에서 읽은 작가의 인터뷰 중 한 대목이 머리를 스쳤다. 그녀 외에도 많은 작가의 인터뷰서 나오는 모범 답변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밀어보기로 하고 다시 갤러리 문을 열었다.



Photo by Claire Donn

2



## Artnow Summer 2017 Junghwa Ryu

이탈리아 코센차(Cosenza)에서 1968년에 태어난 타티아나 트루베(Tatiana Trouvé)는 건축을 결합한 조각, 드로잉, 설치 등의 작업으로 알려진 작가다. 이탈리아, 세네갈,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자란 트루베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그녀가 작가로서 보여준 이력은 꽤 화려하다. 2003년과 2007년 2회에 걸쳐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고, 2007년 파리의 팔레 드 도쿄 개인전에 이어 미르셀 뒤샹 프라이즈 우승, 2008년 퐁피두 센터 개인전, 상파울루 비엔날레와 리움 비엔날레 등 대규모 미술 행사 참여, 그리고 2014년엔 제네바의 MAMCO에서 첫 회고전을 열었다. 이어 2015년엔 뉴욕의 공공미술기금 (Public Art Fund)을 통해 센트럴 파크에 외부 조형물을 설치했고, 동시에 뉴욕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 그녀는 올해 부에노스아이레스 비엔날레와 팔레 드 도쿄 단체전 등을 앞두고 있다.

홍콩에서 열리는 트루베의 첫 개인전 제목은 '잎사귀들의 집(House of Leaves)'이다. 2000년에 출간된 마크 데니얼레프스키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전시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네모반듯한 갤러리 바닥에 펠트 천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고, 바닥을 위로는 불규칙한 크기의 조각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다. '세계들 간의 역사 지도(History Map of the Interworld)', '달의 자전(The Lunar Rotation)', '몽환시 카트(Dream Time Cart)', '세계시(UT)', '그리니치의 동쪽(East of Greenwich)'(모두 2017년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조각 설치물이 눈에 들어온다. 골판지처럼 보이지만 청동 주물로 만든 납작한 판을 서로 의지하듯 배치해 마치 작은 오두막처럼 보인다. 각각의 오두막은 우주적인 어떤 것을 반영한 세계를 상징한다. 예를 들면 '그리니치의 동쪽'은 이탈리아 칼비노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Invisible Cities)>에서 가져왔다.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한 판에는 골판지를 접었을 때의 자국이 그대로 보이는데 이것은 마치 지도에 그린 강처럼 보인다. '달의 자전'에도 청동으로 만든 빛줄 자국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마치 달의 궤도처럼 보인다.

이렇듯 작가가 줄곧 허구와 기억을 섞어 역사를 재창조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 건 2015년 센트럴 파크에 설치한 공공 미술 작품

1  
View of Tatiana Trouvé's Solo Exhibition 'House of Leaves' at Perrotin, Hong Kong, 2017  
2  
프랑스를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 타티아나 트루베.



3  
UT, Aluminium, Copper, Paint, 84×120×130cm, 2017  
4  
The Guardian, Bronze, Copper, Paint, 78×137×49cm, 2013

3



Photo by Ringo Cheung  
© Tatiana Trouvé / ADAGP, Paris & SAGA, Seoul, 2017  
Courtesy of Perrotin

4

'희망선(Desire Line)'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희망선'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넓은 공원에 알록달록한 색과 다양한 길이의 실이 감긴 실뭉치 212개를 3개의 산업용 선반에 나누어 배치한 작품이다. 센트럴 파크를 통과하는 모든 통로의 길이를 측정해 단일 시설에서 전체 공원에 대한 개념적 지수를 만들고, 각 개인의 '희망선'에 따라 공원을 여러 경로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각각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실뭉치에 따라 공원 방문자는 음악가, 미술가, 활동가,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상상 속 발걸음을 좇을 수 있다. 이렇듯 작가는 과거의 기억, 시간을 모으고 허구를 섞어 일종의 지도를 만들면서 형식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에 열중해왔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따르는 경험을 작품에 반영하는 트루베의 작업 방식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MAMCO에서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 '감시자(The Guardian)' (2013년)라는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감시자'는 구리 막대가 놓인 의자 작품으로 의자가 자리한 공간을 통해 상상 속 인물을 설정한다. 즉 의자가 놓인 장소를 통해 보이지 않는 상상 속 인물을 설정하는 것. 이번 페로탱 갤러리 전시에서도 비슷한 의자 작품 2점을 설치했다. 전시를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를 설정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자들의 시선은 전시장 전체를 아우른다. 작가는 이탈리아 건축가 우고 라 피에트라가 말한 "거주한다는 것은 어디서든 집처럼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이다(To inhabit is to be at home everywhere)"라는 문장을 인용한다. 우리의 걸음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우리가 머무는 범위는 우리의 시선이 도달하는 범위고 이는 곧 다른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머무름이란 보는 것이며, 내 시선이 어떤 사물이나 풍경에 닿는 것이고, 익숙하건 낯설건 시선을 통해 그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된 경계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와 세계 사이의 다른 이들의 시선,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일깨우는 방법으로 작가는 '침어'를 이야기한다. 그는 관람객이 자신의 미적 경험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능동적으로 전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작가가 '희망선'을 통해 관람객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각각의 실뭉치에 새겨진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자료를 참고하면서 타인의 발걸음을 뒤따르고 거기에 자신의 기억 혹은 추억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전시를 둘러보고 밖으로 나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기존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이동했을까.'

177